

신라 팔사제(八祀祭)의 양상과 특징

김영준*

〈차 례〉

1. 서론
2. 사제(蜡祭)와 납제(臘祭)
3. 신라 팔사제의 양상
4. 신라 팔사제의 특징
5. 결론

[국문초록]

신라에서는 음력 12월 인(寅)일에 경주 남산에 있는 신성 북문에서 팔사(八祀)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팔사제는 신라 고유의 제사는 아니고 신문왕 때 당나라로부터 길흉요례를 받아들여 사전(祀典)을 정비할 때 받아들인 사제(蜡祭)인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팔사제는 중국의 사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첫 번째로 중국에서는 풍년이 들 때만 사제를 지내고 흉년이 들면 사제를 지내지 않았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풍년과 흉년이 든 해에 모두 팔사제를 지냈다. 다만 사제에 올리는 제물이 달랐는데 풍년에는 대뢰(大牢)를 사용하고 흉년에는 소뢰(小牢)를 사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뢰는 소, 양, 돼지를 가리키며 소뢰는 양과 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된 짐승의 뼈들 중에 양의 뼈가 발견된 경우는 없었으며 기록에도 신라에서 백마와 소를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기록은 있어도 돼지와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로 쓴 것은 소의 돼지를 제물로 쓴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대뢰는 소를 말하고 소뢰는 돼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울진봉평신라비』 등 신라의 금석문에서 제물로 반우(斑牛)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면 대뢰는 반우(斑牛) 즉 쇠소였고, 소뢰는 돼지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 당나라의 정관례에서는 납제(臘祭)가 벌어지기 전에 사제(蜡祭)를 드렸고 개원례에서는 사제와 납제가 모두 납일에 벌어졌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납제는 보이지 않고 사제만 드린다는 점도 중국과 다른 점이다. 또한 제사의 대상이 중국에서는 백신(百神)이지만 신라에는 팔신(八神)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신라가 받아들인 사제(蜡

* 인하대학교 사학과 강사

祭)가 중국의 정관례, 개원례 등 당나라의 예법이 보다는 『예기』에 가까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12월 팔사제가 한 해 농경제사의 첫 순서로 쓰여 있다. 이것은 신라인들의 전통적인 세시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월의 전달인 음력 12월을 단순히 한 해가 끝나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정월의 연장으로 생각한 것을 볼 수 있다. 신라에서도 연말과 연초를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고 생각했고 이것이 12월의 팔사제를 앞에 놓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신라의 팔사제는 당나라로부터 길흥요례의 전래와 함께 신라에 사전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났지만 신라 문화의 영향으로 당나라의 사제(蜡祭)와는 제사방식에 있어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신라. 팔사제, 사제, 납제, 대뢰, 소뢰, 길흥요례

1. 서론

한 해가 끝나는 12월은 양력이나 음력이나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예를 들면, 현대에는 망년회 같은 회식 모임이나 종무식같은 한 해의 업무가 끝나는 행사 등이 벌어졌고, 조선시대 세시기를 보면 납향이나 묵은 세배 같은 행사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한 해가 끝나는 시기는 1년이라는 주기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다음 해를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 달 그믐 다음 날이 바로 설날 즉 다음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설날을 춘절(春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음력 1월 1일부터 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의미이므로 그 전날은 곧 겨울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음력 12월은 겨울의 마지막 날로서 한 해가 끝나고 봄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 동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고대 국가의 연중 행사에서도 연말 행사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록상으로 고대 한국의 연말행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사기』 『제사지』를 보면 신라에서는 12월 인(寅)일에 신성 북문에서 팔사(八蜡)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는 신라에서 12월에 팔사제(八蜡祭)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팔사제는 후술하겠지만 신라 고유의 제사는 아니며 중국으로부터 전래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라의 팔사제는 제물을 바치는 시기

에 있어서 중국의 팔사제(八蜡祭) 혹은 사제(蜡祭)와는 차이를 보인다. 첫째로는 본래 한 해를 감사하는 제사임에도 『삼국사기』 「제사지」에는 각 계절을 대표하는 제사 중에서 순서 상 첫 번째로 언급되었고, 둘째로는 중국에서는 풍년이 들 때만 제사를 지낸다면 신라의 경우는 제물만 달라질 뿐 풍년과 흉년 모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팔사제는 아직까지 독립된 주제로 구체적 양상과 성격으로 연구된 사례는 없지만 신라의 제사 연구와 관련하여 언급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채미하는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동양고전연구』 61, 2015)에서 신라의 팔사제는 “당과 고려·조선의 종묘 납향과는 구분되는 농경제사였다”¹⁾고 하였으며 팔사제가 앞에 나오는 것은 “신라가 비록 중국 제사제도를 받아들여 농경제사를 운용하였지만, 신라의 전통적인 농경과 관련된 시간관념에 바탕을 두고 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라의 팔사제 자체는 일부 논문에서 언급된 사례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라의 팔사제가 중국과 다른 양상을 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이렇게 신라의 팔사제가 중국과 다른 것은 신라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다른 신라의 팔사제의 양상과 특징을 신라의 문화적 전통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팔사제는 납일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팔사제와 납일제사는 모두 연말에 하는 행사로서 서로 섞이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은 고려와 조선 모두 신라의 팔사제가 아닌 납일제사 즉 납제를 음력 12월에 거행하였다. 이것은 팔사제와 납일제사가 서로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사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먼저 납일제사와 팔사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³⁾ 그래서 『삼국사기』

1) 채미하,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2015, 345쪽.

2) 채미하, 앞의 논문, 346쪽.

3) 한국의 납제에 대한 연구로는 박대재, 「三韓의 臘日제사와 부두막 신앙」, 『한국사학보』 37, 2009; 서금석·김병인, 「역사적 추이를 통해본 고려시대 '臘日'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56, 2014;

『제사지』에 보이지 않는 신라의 납일제사가 행해졌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신라의 전통문화적 측면과 납일제사가 행해졌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라의 팔사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는 각종 세시기 및 민속자료에 나와있는 음력 12월에 벌어지는 행사와 비교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2. 사제(蜡祭)와 납제(臘祭)

팔사제는 사제(蜡祭)라고 하며 납제(臘祭)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라의 팔사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제(蜡祭)와 납제(臘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제(蜡祭)는 『예기』 「교특생(郊特生)」에 의하면 매년 12월에 제사를 지내며, 그 대상도 본래는 8신에게 농경의 은혜를 보답하는 감사제였으며,⁴⁾ 납제는 『예기』 「월령」에 의하면 “선조 및 5사(祀)에게 납(臘)제사를 지내고 농부들을 위로하고 휴식시킨다.”⁵⁾라고 하여 음력 10월에 선조 및 5사에게 지내는 제사로 그 양상이 매우 달랐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사제와 납제가 섞이기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이르면 납제(臘祭)와 사제(蜡祭)와 동일시하게 된다. 그러나 사제와 납제가 완전히 섞인 것은 아니었다. 남북조시대에는 남조인 양나라에서는 납제가 12월 8일에 벌어졌으며 북주에서는 음력 10월에 사제(蜡祭)가 벌어졌고 수나라도 북주의 제도를 계승하여 맹동(孟冬) 하해(下亥)에 사제를 지내고 종묘에 납제를 지냈다가 개황 4년(584)에 예제를 고치면서 10월에 사제를 지

서금석·박미선, 「조선시대 ‘臘日’과 그 기능」, 『진단학보』 122, 2014; 서금석, 「조선 후기 납일(臘日) 풍속 양상과 소멸 과정」, 『역사학연구』 63, 2016 등이 있다.

- 4) 『예기』 「교특생(郊特生)」 제11. “천자의 사제(蜡祭)에 있어서 8신을 제사지낸다. 이기씨(伊耆氏)가 처음으로 사제(蜡祭)를 지냈는데 사(蜡)는 찾는 것이다. 매년 12월에 만물의 영혼이 모여 향응한다. (天子大蜡八, 伊耆氏始爲蜡. 蜡也者索也, 歲十二月, 合聚萬物而索饗之也. 蜡之祭也, 主先蒿而祭司蒿也, 祭百種, 以報蒿也.)”
- 5) 『예기』 「월령」 孟冬之月. “臘先祖五祀. 勞農以休息之.”

내고 12월에 납제를 지내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한 당나라 전기에도 사제와 납제가 구분되어 납제가 벌어지기 2일전에 사제를 올리고 납제 전날에는 사직제를 올렸다. 그러나 대당개원례 이후에는 사제와 납제 및 사직제를 모두 납일에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⁶⁾

그런데 위의 『삼국사기』 『제사지』의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는 12월 인일에 팔사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있어 『구당서』 『예의지』의 “계동(季冬) 인일(寅日)에 남교(南郊)에서 백신(百神)에게 사제(蜡祭)를 드린다.”⁷⁾”는 기록에서 시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성복문은 경주 남산신성의 복문을 말하는 것으로 당나라 전기에 사제의 장소가 남교인 것과 제사 장소의 방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신라의 팔사제는 개원례의 영향이 아니라 개원례 이전 정관례를 따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팔사제의 존재로 미루어 보면 신라에서도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납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어람』에 인용된 사승의 『후한서』에 언급된 삼한의 납일제사가 주목된다.

사승의 『후한서』에서 말하기를… 또한 동이열전에서 말하기를 “삼한(三韓)의 풍속에 납일(臘日)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낸다. 민간에서 이르기를 ‘납일(臘日)에 북이 울리면, 봄에 풀이 자란다.’고 한다.”라고 하였다.⁸⁾

『태평어람』 권33 시서부(時序部)18 납(臘)

위의 기록은 신라의 납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라는 삼한 중 진한에서 건국했기 때문에 삼한의 전통과 풍습을 계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사승의 『후한서』의 기록처럼 삼한에서 납일제사가 벌어졌다면 이러한 전통 역시 신라에 계승되었을 가능성이

6) 徐立平, 「论唐代腊日的祭祀及其价值功能」, 『焦作大学学报』 1, 2009年1月 第1期, 37쪽.

7) 『구당서』 권24 지제4 예의4. “季冬寅日, 蜡祭百神於南郊.”

8) 『태평어람』 권33 시서부(時序部)18 납(臘). “謝承後漢書曰…又東夷列傳曰, 三韓俗以臘日家家祭祀, 俗云臘鼓鳴春草生也.”

높다. 그러나 위의 사승의 『후한서』 『동이열전』 기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긍정과 부정으로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대체로 박대제를 제외하면 부정적이다. 하지만 박대제 자신도 삼한의 납일제사가 정말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제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⁹⁾ 이러한 점들을 보면 기존의 연구에서 삼한에서 납일제사가 벌어졌다고 보는 견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삼한에 납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한의 송년의례를 납제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당시 한나라에서 부여의 영고가 벌어지는 시기 대해 『삼국지』에서는 은정월(殷正月)이라고 했다가 범엽의 『후한서』에는 납월(臘月)이라라고 한 점을 통해서도 추측된다.¹⁰⁾ 따라서 삼한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승의 『후한서』에 보이는 삼한의 납일제사는 한나라 때의 풍습을 삼한의 것으로 오인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아마도 삼한에서는 음력 12월에 제사지내는 납제 풍속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라에서도 음력 12월에 납제를 지내는 전통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라는 당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여 제도를 정비해왔고 그 과정에서 당나라에서 사제를 인일에 드리는 것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는 당나라에서 신일(辰日)에 태묘(太廟)에 납향(臘享)한 것과 같이 음력 12월 신일에 5묘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제사지』의 5묘의 제사일에는 12월이 빠져 있어 당나라의 납제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제사지』에 신라의 납제가 빠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추정하자면 납제는 각 왕조의 덕과 관련하여 날짜가 수시로 옮겨간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형식상이지만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제후국임을 표방하던 신라의 입장에서 납제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팔사제가 언제 수용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기록상으로 보이지

9) 박대제, 「三韓의 臘日제사와 부뚜막 신앙」, 『한국사학보』 37, 2009, 514쪽

1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日迎鼓.”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팔사제의 수용에는 신라시대 사전(祀典)의 정비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주목된다.

당(唐)에 사신을 보내 《예기(禮記)》와 문장(文章)에 관한 책을 요청하였다. 측천무후(測天武后)는 담당 관청에 명하여 길흉요례(吉凶要禮)들을 베껴 쓰게 하고, 아울러 문관사림(文官詞林) 가운데 규범이 될 만한 글들을 채택하여 50권으로 만들어 주었다.¹¹⁾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6년(686)

위의 기록을 보면 측천무후로부터 길흉요례라는 책을 베껴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길흉요례가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모르나 이름으로 짐작컨데 길례와 흉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길흉오례 ‘오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정확하지는 않다.¹²⁾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신라는 이 무렵에 사전(祀典)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¹³⁾ 그렇기 때문에 이 때 중국으로부터 사제(蜡祭)가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라에서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중국과는 다른 팔사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
- 11)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6년. “遣使入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 賜之.”
- 12) 재미하는 ‘길흉요례’를 ‘길례’와 ‘흉례’뿐만 아니라 오례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미하, 『신라 중대 오례와 왕권-오례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27, 2006, 130쪽.)
- 13) 윤선태, 『新羅 中代の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新羅文化祭學論文集』 23, 신라문화선양회, 2002, 105쪽.

3. 신라 팔사제의 양상

1) 제사의 대상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팔사제의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2월 인(寅)일에는 신성 북문에서 팔사(八槽)에 제사를 지내는데 풍년에는 대뢰(大牢)를 사용하고, 흉년에는 소뢰(小牢)를 사용한다.¹⁴⁾

『삼국사기』 「제사지」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12월 인일(寅日)을 팔사(八槽)에 제사지내는 날로 여기고 있었다. 여기서 팔사(八槽)는 조선 중종 7년에 간행된 정덕본 『삼국사기』 원문에는 ‘팔석(八槽)’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절요』 12 선덕왕 4년(783)에는 ‘팔석(八槽)’이 ‘팔사(八槽)’라고 쓰여 있다.¹⁵⁾ 이러한 점을 보면 ‘팔석(八槽)’은 ‘팔사(八槽)’의 오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는 12월 인일에 팔사(八槽)에 대한 제사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라의 팔사제는 당나라의 사제(蜡祭)를 받아들였지만 그 양상은 중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사 대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말하는 팔사제의 대상은 『예기』 「교특생」의 내용을 보면 선색(先畜), 사색(司畜), 농(農), 우표철(郵表駮), 고양이와 호랑이, 제방, 수옹(水庸), 곤충의 8종류를 말한다. 그러나 당나라에서는 백신(百神)에게 사제(蜡祭)를 드렸다고 하여 신라와 당나라에서 제사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백신(百神)에 대해 『당육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 『삼국사기』 「제사지」. “十二月寅日, 新城北門, 祭八槽,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15) 『삼국사절요』 12 선덕왕 4년(783). “十二月寅日, 新城北門, 祭八槽, 豐年用大牢, 凶年用小牢.”

음력 12월 납일 전에 남교에서 백신에게 사제(蜡祭)를 드리는데 해, 달, 신농, 후직, 이기, 5관, 5성, 28수, 12진, 5악, 4진, 4해, 4독, 5전준, 청룡, 주작, 기린, 추우, 현무, 및 5방의 산령, 천택, 구룡, 분연, 원습, 정천, 수용, 방, 어토, 인, 우, 개, 모, 나, 우표철, 묘, 곤충 등 모두 187좌이다.¹⁶⁾

『당육전』 권4 상서예부 사부(祠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신에는 팔사제의 대상인 8종의 신들을 포함하여 청룡, 산악, 천택 등 다양한 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점은 『예기』의 사제(蜡祭)와는 차이가 있으며 아마도 사방에서 제사지 내던 신령들을 남교에서 제사지는 것으로 바꾸면서 8종의 신령에서 백여종의 신령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⁸⁾

하지만 신라의 경우 사제(蜡祭)라고 하지 않고 팔사(八蜡)라고 한 것을 보면 당나라처럼 백여 종의 신령들을 제사한 것이 아니라 선색(先嗇), 사색(司嗇), 농(農), 우표철(郵表駮), 고양이와 호랑이, 제방, 수용(水庸), 곤충의 8종류의 신령을 제사지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신들은 당나라의 사제의 대상인 백신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농경과 관련된 신들이었다. 예를 들면, 선색(先嗇)은 정현의 주석에 따르면 “신농과 같은 것”이라고 했고, 사색(司嗇)은 후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⁹⁾ 또한 농(農)은 고대의 전준(田畯)이라는 사람인데 농사와 관련된 세금 및 요역을 담당했다고 하며, 우표철(郵表駮)은 저준이 백성들을 감독하기 위해 경작지 사이에 거처하던 곳을 뜻한다고 한다.²⁰⁾ 그리고 고양이와 호랑이를 섬기는 것은 고양이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들쥐를 잡아먹고 호랑이도 역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멧돼지를 잡아

16) 『당육전』 권4 상서예부 사부(祠部). “季冬臘日前蜡百神於南郊, 大明·夜明·神農·后稷·伊祁·五官·五星·二十八宿·十二辰·五岳·四鎮·四海·四瀆·五田畯·青龍·朱雀·麒麟·驕虞·玄武及五方山林·川澤·丘陵·墳衍·原隰·井泉·水壩·坊·於菟·鱗·羽·介·毛·羸·郵表駮·貓·昆蟲, 凡一百八十七坐.”

17) 이점은 『대당개원례』도 동일하다.

18) 徐立平, 앞의 논문, 2009년1월 第1期, 39쪽.

19) “先嗇 若神農者, 司嗇, 后稷是也.”(정병섭 역, 『예기집설대전-교특생 2』, 학고방, 2015, 113쪽)

20) 정병섭 역, 앞의 책, 115쪽.

먹기 때문이다. 이외에 제방과 수용(水庸)은 모두 농사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곤충에 대해서 중국 한(漢)나라의 유학자인 공안국(孔安國)의 주소(註疏)에 의하면 “왕숙이 열거한 대상에는 곤충이 없다. 정현은 곤충을 포함시키고, 고양이와 호랑이를 합쳐서 하나로 보았는데 곤충이 경작물을 해치지 않는 것 또한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¹⁾ 이는 다른 7신의 경우는 모두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대상이지만 곤충은 곧 해충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사제(蜡祭)의 대상인 8신은 모두 농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신라에서는 사제의 대상이 8신이라면 중국은 8신을 포함한 백신(百神)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은 불분명하며 황제와 제후의 차이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길흉요례의 내용이 『예기』에 좀더 가까웠기 때문에 사제의 대상이 당나라처럼 백신(百神)이 아니라 8신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사 시기

다음으로 제사 시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본 것처럼 신라의 팔사제 제사 날짜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나라의 정관령, 영휘령, 개원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런데 『삼국사기』 『제사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농경의례적 성격을 가진 정기 제사가 서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2월 인일의 팔사제→입춘 후 해일 신농제→입하 후 해일 중농제→입추 후 해일 후농제→입춘 후 축일 풍백제→입하 후 신일 우사제→입추 후 신일 영성제

21) “王肅分猫虎爲二，無昆蟲，鄭數昆蟲，合猫虎者，昆蟲不爲物害，亦是其功。”(정병섭 역, 앞의 책, 158쪽)

22) 채미하,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2015, 336쪽.

위의 순서를 보면 대체로 12월을 제외하면 모두 1월부터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춘은 음력 1월, 입하는 음력 4월, 입추는 음력 7월에 있는데 선농·중농·후농에 대한 제사와 풍백·우사·영성에 대한 제사가 이러한 규칙 속에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면 계절적으로 “겨울(음력 12월)→봄(입춘)→여름(입하)→가을(입추)”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사지에 보이는 기록에서 특이하게도 봄보다 겨울의 제사가 먼저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12월에 벌어지는 팔사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사라는 점에서 ‘마무리→시작’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재미하는 신라에서 농경제사를 12월부터 헤아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신라의 전통적인 농경과 관련된 시간관념에 바탕을 두고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²³⁾ 그런데 이러한 재미하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팔사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의 농경의례에 있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를 시점으로 세수(歲首)를 삼으며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앞서 팔사제의 수용시기이다. 앞서 팔사제는 신라가 길흉요례를 받아들이고 사전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측천무후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측천무후는 황제에 올라 나라 이름을 ‘주(周)’라고 하고 역법을 주나라때 역법으로 바꾼다. 이와 동시에 세수(歲首)도 음력 11월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역법이 바뀌고 세수가 바뀌면서 신라도 순서 상 마지막에 있어야 할 팔사제가 앞 순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법의 변화가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팔사제가 앞에 위치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주나라 역법을 사용한 것은 측천무후때만은 아니었다. 수나라도 초기에는 북주의 제도를 계승하여 사제(蜡祭)를

23) 재미하, 앞의 논문, 346쪽.

맹동(孟冬) 즉 음력 10월에 행했다.²⁴⁾ 이는 북주가 『주례』를 이용하여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수(歲首)도 주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월(子月) 즉 음력 11월로 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을 보면 측천무후 역시 세수를 음력 11월로 바꾸면서 사제(蜡祭)도 음력 11월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보이는 신라의 팔사제와 측천무후가 사용한 주나라 역법에서의 사제(蜡祭)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측천무후가 고대 주나라 역법에 근거하여 세수를 바꾼 시기는 690년~700년의 11년 동안인데 이 영향으로 신라에서 세수가 음력 11월로 바뀐 시기는 효소왕 4년(695)~9년(699) 4년간이다. 그리고 길흉요례가 전래된 것은 신문왕 6년(686)으로 길흉요례의 전래 시기가 측천무후가 역법을 바꾸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측천무후에 의한 주나라의 역법이 신라의 사전(祀典)에 준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이는 팔사제가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앞에 위치한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팔사제가 앞순서에 있게 된 것은 중국의 영향보다도 한국의 전통적인 선달 그믐 풍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되기 직전인 선당 그믐 풍속을 보면 다음 날인 설날과 중복되는 풍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표1] 선달 그믐 풍속과 중복되는 설날풍속

선달 그믐 풍속	설날 풍속	출처
묵은 세배	세배	『동국세시기』
옷놀이	옷놀이	『동국세시기』
세찬(歲饌)	세찬(歲饌)	『동국세시기』

이러한 것들을 보면 선달 그믐날의 풍속과 설날의 풍속이 겹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잘 알려진 동요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24) 徐立平, 「论唐代腊日的祭祀及其价值功能」, 『焦作大学学报』 1, 2009年1月 第1期, 37쪽.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는 구절에 보이는 까치설은 선달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까치설은 동지(冬至)처럼 ‘작은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 풍습에서는 선달 그림과 설날을 거의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달 그림의 풍속 중 묵은 세배는 감사의 의미를 가진 세배로서 한 해가 시작되는 설날에 하는 세배하고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들을 통해 추측하자면 농경의례로서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해야 할 팔사제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농경시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신라인들의 전통적인 세시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말과 연초를 하나의 연장선상에 놓은 사고 방식이 있었고 이것이 12월의 팔사제를 앞에 놓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팔사제와 비슷한 성격의 납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팔사제가 앞 순서에 있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묵은 이색의 시를 모아 놓은 『牧隱詩彙』 권6雪的 “납일 전 세 차례 눈은 이것이 풍년의 조짐일세”²⁵⁾라는 구절과 “납일 전 세 차례 눈은 풍년을 기린다지”²⁶⁾라는 구절을 보면 고려 시대에는 납일에 내리는 눈을 다음 해 풍년이 올 징조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영조가 말년에 노환으로 늙고 내린 하교의 내용 중에 “지금 나에게 있어서 다른 하나는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는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납향(臘享) 전에 눈이 내렸으니, 풍년을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도에서는 또 장차 창고를 봉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편히 쉬게 하라.”라고 하고 있다.²⁷⁾ 이런 점들을 보면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납일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면서도 다음 해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이러한 관념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려와 조선에만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적어도 신라시대부터 내

25) 『牧隱詩彙』 卷6, 詩 雪. “臘前三白是豐年”

26) 『牧隱詩彙』 卷6, 詩 雪. “臘前三白頌豐年”

27)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 12월 27일. “今予一則憶昔, 一則爲民, 臘前三白, 可以〔占〕 豊. 諸道又將封倉, 其令吾民皆便休.”

28) 서금석·김병인, 「역사적 추이를 통해본 고려시대 ‘臘日’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56, 2014, 140쪽.

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은 주로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월 보름에 벌어지는 벅가릿대 세우기와 달빛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일 등이 있다.²⁹⁾

이런 점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월의 전달인 음력 12월을 단순히 한 해가 끝나는 날로 생각하지 않고 정월의 연장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라에서 음력 12월에 벌어지는 팔사제가 농경에 대한 감사제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제사 첫 번째에 기술된 것은 축천무후 때 역법의 변화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 제사 장소

다음으로 이러한 팔사제가 벌어지는 장소는 신성(新城) 북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남산신성의 북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성 북문은 『삼국사기』 『제사지』에서 “하 후 해일에 신성 북문에서 중농에 제사 지내고”³⁰⁾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중농에 대한 제사 장소이기도 했다. 즉 여름에 지내는 제사 장소와 겨울에 지내는 제사 장소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남산 신성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산 신성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는 점들도 보인다. 남산신성은 기록상으로 진평왕 13년(591) 7월에 쌓은 성이며³¹⁾ 문무왕 3년(663)에 미곡(米穀)과 병기를 비축하기 위해 장창(長倉)을 만들고³²⁾ 문무왕 19년(679)에 증축된다.³³⁾ 이런 점들을 보면 남산신성은 수도 방어를 위해 만든 것으로

29) 『동국세시기』 정월(正月) 상원(上元)

30) 立夏後亥日, 新城北門, 祭中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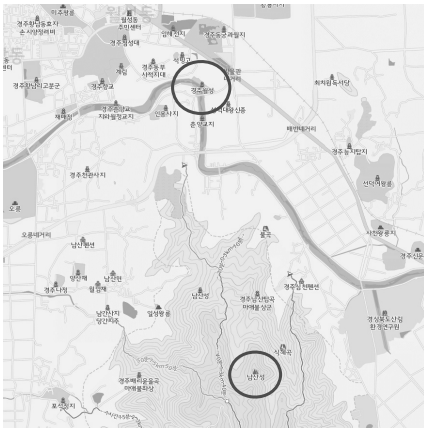
31)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가을 7월에 남산성(南山城)을 쌓았는데, 둘레가 2천 8백 5십 4보였다.(秋七月,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步.)”

32)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3년 봄 정월에 남산신성(南山新城)註 138에 장창(長倉)을 지었다.(三年, 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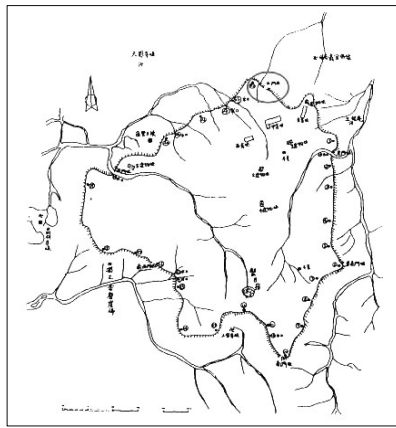
33)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9년. “남산성(南山城)을 늘려 쌓았다.(增築南山城)”

보인다. 특히 남산신성의 북문의 경우는 위치상으로 신라의 수도인 월성에서 남쪽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며 심지어는 장창지(長倉址)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한다.³⁴⁾ 이렇게 신라가 남산에 성을 쌓고 창고를 만들어 미곡과 병기를 보관한 점들이나 그 창고의 위치가 신성 북문에서 가까운 점 등을 보면 남산신성은 수도 방위 혹은 비상시 조정이나 국왕의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즉 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예제를 도입하여 사제를 치르기 위한 장소로서 신성 북문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방용에 의하면 신성 북문은 다른 남산 신성의 문터와 비교해보았을 때 정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³⁵⁾ 보통 한 성의 정문은 가장 규모가 크고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성문과 달리 제사 장소로 적합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장으로 활용된 것으로 생각된다.³⁶⁾



[그림1] 경주 월성과 남산신성의 위치



[그림2] 남산신성 북문지(붉은 동그라미)

34) 박방용, 『경주 남산신성고』,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5쪽.

35) 박방용, 위의 논문, 15쪽.

36) [그림1]의 출처: 국토정보지리원 홈페이지; [그림2]의 출처: 박방용, 위의 논문, 77쪽.

4. 신라 팔사제의 특징

앞서 본 것처럼 신라의 팔사제는 당나라로부터 전래된 예제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당나라와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많다. 그런데 당나라와의 차이점 중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으로는 1년 농사의 상태에 따라서 제물을 쓰는 방법에 있다. 그래서 희생 즉 제물을 쓰는 방법은 양상에 속하지만, 본 장에서는 제물을 쓰는 법을 중심으로 당나라와 다른 신라 팔사제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래 『예기』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처럼 사제(蜡祭)는 1년 농사의 상태에 따라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안 지내기도 하였다.

팔사를 제사지낼 때 사방에서 한 해에 곡식이 순조롭게 익지 않으면 팔사를 지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재화를 아끼고, 곡식이 순조롭게 익은 지역은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사제를 끝내고 만물을 수렵하면 백성들을 쉬게 한다. 그러므로 사제를 끝낸 다음에 군주는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다.³⁷⁾

『예기』 「교특생」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기』에서 사제는 풍년일 때만 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구당서』 「예의지」 4에서도 “사제(蜡祭)는 무릇 187좌이다. 그 해에 곡식이 익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³⁸⁾라고 하여 흉년에는 사제를 드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라의 경우는 풍년일 때는 대뢰를 제물로 쓰고 흉년일 때는 소뢰를 제물로 쓰는 등 당나라의 예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뢰는 대뢰라고도 하는데 소뢰와 함께 중국에서 전통적 제물로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7) 『예기』 「교특생」. “八蜡以記四方，四方年不順成，八蜡不通，以謹民財也。順成之方其蜡乃通，以移民也。既蜡而收，民息已。故既蜡，君子不興功。”

38) 『구당서』 「예의지」 4. “蜡祭凡一百八十七座。當方年穀不登，則闕其祀。”

천자가 사직에 제사를 지낼 때 모두 대뢰(大牢)를 사용하고, 제후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모두 소뢰(少牢)를 사용한다.³⁹⁾

『예기』 「왕제」 제5

자기(子期)가 평왕을 제사지낸 뒤 제사에 사용된 우조(牛俎)를 왕에게 보냈다. 이에 왕이 관야보(觀射父)에게 말하기를, “사생(祀牲)으로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부모에 대한 제사는 삭망(朔望)의 제사보다 많은 희생을 사용합니다. 천자는 삭망에 태뢰(太牢)를 바치고 제사 때는 3태뢰(三太牢)를 바칩니다. 제후들은 삭망에 특우(特牛)를 바치고 제사 때 태뢰를 바칩니다. 경은 삭망에 소뢰(少牢)를 바치고 제사 때는 특우를 바칩니다. 대부는 삭망에 특생(特牲)을 바치고 제사 때는 소뢰를 바칩니다. 사인은 삭망에 어적(魚炙)을 바치고 제사 때는 특생을 바칩니다. 평민은 삭망에 채소를 바치고 제사 때에는 어적을 바칩니다. 예제의 규정에 따라 상하에 엄격한 등급 차서가 있어 어떤 사람도 감히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⁴⁰⁾

『국어(國語)』 권18 초어(楚語) 하

이렇게 태뢰와 소뢰의 사용에는 천자와 제후, 대사와 소사 등의 차이가 있지만 풍년과 흉년에 따라 나누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풍년과 흉년에 따라 제물을 태뢰와 소뢰로 나누고 있어 중국의 예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뢰와 소뢰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태뢰(大牢)는 태뢰(太牢)라고도 한다. 기원전 1세기 경 대덕(戴德)이 썼다고 하는 『大戴禮記』第58 「曾子天圓」에 의하면 “제후는 제사지낼 때 소를 희생으로 쓰는데 태뢰(太牢)라고 하며 대부가 제사지낼 때 양을 쓰는데 소뢰(少牢)라고 한다.”⁴¹⁾라고 하여 원래는 소

39) 『예기』 「왕제」 제5. “天子社稷皆大牢，諸侯社稷皆少牢.”

40) 『국어(國語)』 권18 초어(楚語) 하. “子期祀平王，祭以牛俎於王。王問於觀射父曰，祀牲何及。對曰，祀加於舉，天子舉以大牢，祀以會。諸侯舉以特牛，祀以大牢，卿舉以少牢，祀以特牛，大夫舉以特牲，祀以少牢，士食魚炙，祀以特牲，庶人食菜，祀以魚。上下有序，民則不慢。”

41) 諸侯之祭，牲牛，曰太牢。大夫之祭，牲羊，曰少牢。

를 가리키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원나라 때 오계공(敖繼公)이 편찬한 『의례집설』 권8상 우치관(右致館)에 의하면 “되(牢)는 대되(大牢)이다. 대되(大牢)란 소, 양, 돼지 각 한 마리를 말한다.”⁴²⁾라고 하여 대되(大牢)는 원래 소 하나만을 이야기하다가 후대에는 소, 양, 돼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소되(小牢)는 앞서 본 것처럼 소되(少牢)라고 하며 본래는 양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어(國語)』 권18 초어(楚語) 하에 있는 삼국시대 오나라 사람인 위소(韋昭)의 주석에 의하면 이미 삼국시대에 소되는 양과 돼지를 가리키고 있다.⁴³⁾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대되는 소, 양, 돼지를 가리키며 소되는 양과 돼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과연 변화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소되는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제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한나라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소되는 범위가 양 하나에서 양과 돼지로 확대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大戴禮記』第58 「曾子天圓」의 기록은 소가 태되에 속하고 양이 소되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소 하나가 태되이고 양 하나가 소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원나라 때 기록이기는 하지만 『의례집설』의 대되에 대한 설명은 앞서대의 대되에 대한 설명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태되는 곧 소, 양, 돼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보면 당나라에서도 대되는 소, 양, 돼지를 포함하며 소되는 양과 돼지를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풍년에는 소, 양, 돼지를 제물로 삼고 흉년에는 양과 돼지를 제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라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된 짐승의 뼈들 중에 양의 뼈가 발견된 경우는 없었으며 기록에도 신라에서 백마와 소를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기록은 있어도 돼지와 양을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라에서 소를 제물로 바치는 모습은 지증왕 4년(503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영일냉수리신라비와 법흥왕 11년(524년)에 만들어진 것으

42) 牢, 大牢也, 大牢者, 牛羊豕各一也.

43) 少牢, 羊豕也.

로 추정되는 울진봉평비에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전면]斯羅의 喙 斯夫智王과 乃智王 두 왕이 敎示를 내려 珍而麻村의 節居利로써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셨다. … [후면]이 7인이 삼가 아뢴바 일이 완결되어 소를 잡고 널리 고하였기에 이에 기록한다.44)

『영일냉수리신라비』

갑진년 정월 15일에 靉부 모즉지 매금왕, 사靉부 사부지갈문왕, 본피부■부지간지, 靉靉부 미흔지간지, 사靉부 이점지태아간지, 길선지아간지, 일독부지일길간지, 靉부 물력지일길간지, 신육지거별간지, 일부지태나마, 일이지태나마, 모십지나마, 사靉부 십부지나마, 실이지나마 등이 교시하신 일이다. …신라6부가 얼룩소를 잡아서…45)

『울진봉평신라비』

위의 두 기록을 통해 신라에서 희생으로 소를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살우(殺牛) 즉 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의식은 팔사제와 같은 정기적인 제의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분쟁을 처리하고 신 앞에 서약하는 의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기록들은 비록 팔사제와는 상관없지만 신라에서 예부터 소를 희생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과 그것이 우경(牛耕)을 시작한 후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소는 신라의 토우(土偶)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신라의 토우 중에서 [그림3]46)과 같은 우형토기(牛形土器)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대구에서 함안에서 이르는 낙동강지역이라고 한다.47) 그리고 우형토기를 비롯한 동물형

44) 『영일냉수리신라비』, “斯羅喙夫智王乃智王, 此二王敎, 用珍而麻村節居利爲證示, 令其得財敎耳. … [후면]此七人■踪所白了事, 煞牛拔諾, 故記.”

45) 『울진봉평신라비』, “甲辰年, 正月十五日, 喙部牽即智寐錦王沙喙部徙夫智葛文王本波部■夫智干支岑喙部斯智干支沙喙部而 智太阿干支吉先智阿干支一毒夫智一吉干支喙勿力智一吉干支愼宍智居伐干支一夫智太奈麻一小智太奈麻牟心智奈麻沙喙部十斯智奈麻悉尔智奈麻等所敎事. …新羅六部煞斑牛…”

46) 『경주 황남동 출토 신라 토우-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09, 144쪽.

토기들은 종교용 및 제사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희생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⁴⁸⁾ 이와 관련하여 『동국세시기』에는 관북지방에서는 입춘에 관가와 민가에서 나무로 된 소를 만들어 길에 내놓는 풍습



[그림3] 신라 토우-우형토기(牛形土器)

이 있는데 이를 『월령』 12월에 토우(土牛)를 만들어 한기를 내보내던 풍습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⁴⁹⁾ 이것은 농사를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⁵⁰⁾ 이외에 맹서를 할 때 백마를 희생으로 쓴 사례가 있지만 신라에서 돼지와 양을 희생제물로 사용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보면 돼지와 양은 신라에서 희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제5 태종왕에 의하면 굴불군에서 흰 돼지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이⁵¹⁾ 고구려의 경우와 같이 돼지 사냥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신라에서도 고구려와 같이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라유적에서 양의 뼈가 발견된 사례가 보이지 않고 신라에서 양을 키우거나 사냥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아 신라에서는 양을 제물로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⁵²⁾ 따라서 신라에서 비록 풍년과 흉년을 나누어 대외와 소외를 제물로 썼지만 결국 양을 제외한 소와 돼지를 제물로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때 썼던 제물로는 반우(斑牛) 즉 칩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울진봉평신라비』에서는 “신라 6부가 모여서 반우(斑牛)를 잡고 제사하였으며”⁵³⁾라는 부분을 보면 반우(斑牛)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47) 이난영, 『신라의 토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62쪽.

48) 이난영, 앞의 책, 2000, 63쪽.

49) 흙으로 만든 소를 내 놓아 한기를 내보내도록 한다.(出土牛以送寒氣.)

50) 『동국세시기』 「입춘」, “關北俗, 是日作木牛, 自官府達于閭里, 遍出于路, 盖敝出土牛之制, 而所以勸農祈年之意也.”

51) 『삼국사기』 권 제1 「신라본기」 제5 태종왕. “冬十月, 牛首州獻白鹿, 屈弗郡進白猪, 一首二身八足.”

52) 신라의 토우에서도 양은 보이지 않는다.

수 있다. 이러한 반우(斑牛)는 칙닝쿨을 감아 놓은 것 같다고 하여 ‘휩소’라고 불리는데 이외에 얼룩무늬가 몸에 흩어져 있다고 하여 ‘리우(离牛)’, 얼룩무늬가 몸에 있다고 하여 리우(犁牛), 얼룩무늬가 호랑이처럼 보인다고 하여 호반우(虎斑牛)등으로 불렸다고 한다.⁵⁴⁾ 또한 『포항냉수리신라비』에는 그냥 “이 7인이 무릎을 꿇고 보고한 일을 마치고 소를 잡아 널리 알리었기에 이에 기록한다.”⁵⁵⁾라고 하여 소를 잡았다고만 하였지만 『울진봉평신라비』의 내용을 보면 신라시대에는 그냥 소가 아니라 휩소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휩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리우(离牛)라고도 부르는데⁵⁶⁾ 1399년에 발간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에 의하면 “청우(靑牛)·흑우(黑牛)·리우(离牛) 모두 이마에 누런태가 있는 것을 기르면, 주인은 기쁨과 경사가 많고 가축에게 좋으며 재산을 불러오니 크게 길하고 이롭다.”⁵⁷⁾라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은 비록 이마의 색깔을 가지고 말한 것이지만 다른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에서 청우(靑牛)·흑우(黑牛)·리우(离牛)에 대한 항목에만 있는 것이므로 청우(靑牛)·흑우(黑牛)·리우(离牛)를 길(吉)한 소로 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논어』 옹야(雍也)편에 의하면 “얼룩소 새끼로서 털이 붉고 뿔이 바르면 희생으로 쓰지 않으려고 해도 산천의 신이 내버려 두겠는가?”⁵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휩소는 상당히 길(吉)한 소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에서는 팔사제에서 대뢰(大牢)로서 휩소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53) 新羅六部, 繁斑牛沐麥

54) 손환일·심현용, 『울진봉평신라비』, 서화미디어, 2010, 55쪽.

55) 此七人跟踪所白了事, 繁牛拔語故記.

56) 이에 대해 리우(离牛)를 휩소로 보지 않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진수는 리우(离牛)가 청우(靑牛)·흑우(黑牛)와 같이 있는 것을 보면 리우(离牛)의 리(离)는 8괘중 리괘(离掛)이며 이는 5행중에서 화(火)에 해당되고 화(火)는 곧 붉은 색이므로 리우(离牛)는 붉은 소라고 보았다.(김진수, 『휩소를 묻다』, 도서출판 잉걸, 2015, 115~116쪽)

57) 靑牛黑牛离牛, 總有額上一苔黃者, 養之, 主人多喜慶事, 宜六畜, 招錢財, 大吉利也。

58) 犂牛之子, 駢且角, 雖欲勿用, 山川其舍諸。

5. 결론

이렇게 팔사제는 당나라로부터 수용한 농경의례로서 연말에 벌어지는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납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당시 당나라의 정관례에서는 납제가 벌어지기 전에 사제를 드렸고 개원례에서는 사제와 납제가 모두 납일에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는 납제는 보이지 않고 사제만 드리고 있었다. 또한 제사의 대상에 있어서 당나라에서는 백신(百神)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라에서는 8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당나라에서는 풍년이 들면 사제를 드리고 흉년이 들면 사제를 드리지 않지만 신라는 풍년에는 소를 쓰고 흉년에는 돼지를 쓰는 식으로 풍흉에 상관없이 사제를 드리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지 않다. 먼저 당나라와는 달리 백신(百神)이 아니라 8신이 된 것은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길흉요례에 있는 사제(蜡祭)에 관한 내용이 『예기』에 가까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예기』에서 사제(蜡祭)는 흉년에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라에서는 흉년과 풍년에 모두 벌어지고 제물만 달라지는 것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라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록에는 팔사제에서 풍년에는 대퇴를 쓰고 흉년에는 소퇴를 쓴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흉년에 돼지를 쓰고 풍년에는 닭소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팔사제는 분명히 중국에서 받아들였지만 당시 중국 당나라의 사제(蜡祭)를 그대로 따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나라에서 받아들인 길흉요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신라의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 「제사지」에 12월에 벌어지는 팔사제의 순서가 입춘 후 행사 앞에 위치한 것은 음력 12월을 정월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며, 풍년에 대퇴 즉 닭소를 쓴 것은 『울진봉평신라비』에서처럼 중요한 일에 닭소를 쓴 전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이처럼 팔사제는 길흉요례의 전래와 함께 신라에 사전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생겨났지만 신라 문화의 영향으로 당나라의 사제(蜡祭)와는 제

사방식에 있어 차이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59) 반면에 소뢰로 쓰인 돼지는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로 다음 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제물로 바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1. 자료

- 『예기』
- 『국어』
- 『태평어람』
- 『당육전』
- 『대대례기』
- 『후한서』
- 『구당서』
- 『삼국사기』
- 『삼국사절요』
- 『목은시고』
- 『영조실록』
- 『동국세시기』
- 『영일냉수리신라비』
- 『울진봉평신라비』

2. 저서

- 김진수, 『최소를 묻다』, 도서출판 잉걸, 2015.
- 손환일·심현용, 『울진봉평신라비』, 서화미디어, 2010.
- 이난영, 『신라의 토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 정병섭 역, 『예기집살대전-교특생 2』, 학고방, 2015.
- 『경주 황남동 출토 신라 토우-영원을 꿈꾸다』, 국립중앙박물관, 2009.

3. 논문

- 박대재, 「三韓의 臘日제사와 부뚜막 신앙」, 『한국사학보』 37, 2009.
- 徐立平, 「论唐代腊日的祭祀及其价值功能」, 『焦作大学学报』 1, 2009年1月 第1期.
- 윤선태, 「新羅 中代の 成典寺院과 國家儀禮」,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3, 신라문화선양회, 2002.
- 채미하, 「신라의 오묘 제일과 농경 제일의 의미」, 『동양고전연구』 61, 2015.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Silla's Palsaje

Kim Young Joon*

In Silla, it is said that a memorial service for Palsa was held at the northern gate of Sinseong in Namsan Mountain, Gyeongju on the 12th day of the lunar calendar. These Palsaje are not unique rituals of Silla, but they were accepted by the Tang Dynasty during the reign of King Simmun and when the dictionary was reorganized. However, the a memorial service for Palsa of Silla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ina. First, in China, priests were held only when there was a good harvest, but not when there was a bad harvest. However, in Silla, Palsaje was held in both abundant and poor years. However, the offerings offered to the priest were different, but Daeroe was used in the rich year and Soroe was used in the poor year. It seems that the larvae here refer to cows, sheep, and pigs, and the torpedoes refer to sheep and pigs. However, no bones of sheep have been found among the bones of animals excavated from Silla-related relics, and records show that Silla sacrificed white horses and cattle, but there is no record of sacrificing pigs and sheep. Therefore, it seems that what was used as a sacrifice was the Nonparty pig, and perhaps Daerung refers to a cow and Sorung refers to a pig.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banwoo was sacrificed as a sacrifice at Geumseokmun Gate of Silla, such as 『Uljin Bongpyeong Sinrabi』, it is thought that Daereu was Banwoo, or arrowroot, and Soroe was a pig. Second, in the Tang Dynasty's Jeonggwanyye, a priest was offered before the ritual, and in the opening ceremony, both the

* a lecturer in history at Inha University

priest and the ritual were held on the day of the ritual. However, the fact that Silla does not show payment and only offers priests is different from China. In addition, the object of the ritual is a vaccine in China,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it is an eight god in Silla. This is thought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iests accepted by Silla were closer to “yegi” than the etiquette of the Tang Dynasty, such as Jeong Gwan-rye and Gae Won-rye in China. Third, in the Samguk Sagi and Jaesaji, the Palsaje in December is written in the first order of agricultural and economic history. This is thought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illa people.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lunar month, which is traditionally the delivery of the first lunar month, was not simply considered as the end of the year, but as an extension of the first lunar month. Silla also thought of the end of the year and the beginning of the year as an extension, and this is believed to be the reason why the Palsaje in December was placed in front of it. As such, the Palsaje of Silla was created when the preliminary system was established in Silla with the introduction of auspicious rites from the Tang Dynasty, but it seems that the influence of Silla culture created a difference in ritual methods from the Tang Dynasty.

Key words : Silla, a memorial service for Palsa, Saje, Dea-roi, So-roi, Gil-yung-Yo-le